

주총 앞두고 '배당형 펀드' 인기 ↑... 한달 새 200억원

안정적 수익 노리는 투자자 늘어나
행동주의 사모펀드 배당요구 거세
전문가 "배당주 인기 당분간 지속"

올해 들어 배당형 펀드에 많은 자금이 몰렸다. 특히 주주총회가 다가오면서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배당 요구가 거세지면서 펀드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주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최근 1개월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배당형 펀드인 '베어링고배당플러스(주식)F'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에만 195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전체 설정액(1690억원)의 12%가 한달 새 모인 것이다.

해당 펀드는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 가치가 우수한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한다. 삼성전자(펀드내비중 9.62%), PO스코(9.28%), SK텔레콤(3.66%), SK하이닉스(3.28%) 등을 담고 있다.

◆ 배당주 펀드, 인기도 수익도 'GOOD'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봐도 자금 유

(최근 3개월 자금 유입 상위 10개 펀드)

펀드명	유형명	운용사	설정액	순자산	개별펀드 자금 유출입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베어링고배당플러스(주식)F	배당주식	베어링	1,690	1,589	195	186	188
이스트스프링코리아인덱스(주식)C-F	KOSPI200인덱스	이스트스프링	937	1,041	169	155	155
교보약사Hi-Korea적립식별티K-ID(주식)	일반주식	교보약사	439	419	100	132	100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C-C	일반주식	한국밸류	2,740	3,143	40	132	96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주식)C형	배당주식	신영	2,252	2,416	4	115	82
한화코리아레전드채입투자(주식)C-C-f	일반주식	한화	101	108	0	100	0
KB한국주식EMP솔루션(주식-재간접)C-F	일반주식	KB	515	459	31	89	62
신영마라톤소득공제(주식)C형	일반주식	신영	1,411	1,581	23	74	54
한국투자퇴직연금국민연금(주식)C	일반주식	한국	616	558	-3	42	38
신영밸류고배당(주식)C형	배당주식	신영	10,451	10,852	-32	36	-33

(3월 15일 기준)

(단위: 억원)
/자료=한국펀드평가

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 10개 펀드 중 3개 펀드가 배당형 펀드로 나타났다. 베어링고배당 펀드를 비롯해 설정액만 2조 5000억원(폐필리펀드 포함)에 달하는 초대형 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 펀드의 인기도 여전했다. 장기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 펀드도 5번째로 많은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한국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나 기업 정책이 주주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총이 다가오면서 배당에 대한 기

대가 반영돼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2월 말부터 코스피 추가 상승이 제한된 점도 상대적 안전처인 배당주로 시선을 옮기게 했다"고 분석했다.

배당주 펀드에 자금이 몰린 것은 증시 변동성이 커졌고, 상장사 실적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실제 배당주 펀드는 일반 액티브 펀드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개월동안 액티브 펀드 전체 수익률이 4.73%를 기록한 반면 배당주 펀드는

5.08% 수익을 기록했다. 특히 하락장에서 방어효과가 뛰어났다. 전체 액티브 펀드가 최근 6개월 간 5% 하락한 가운데 배당주 펀드는 2.59% 하락하는데 그쳤다.

◆ 배당형 펀드는 '중장기 트렌드'

아울러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배당형 펀드의 인기요소다.

최근 엘리엇이나 KCGI 등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기업들의 배당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역시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면서 저배당 또는 무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이 지적한 10개사 중 7개사는 올해 배당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배당형 펀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봤다. 국내기업의 배당성향(총배당금/순이익)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배당확대는 중장기 트렌드라는 분석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시를 통해 배당 확대를 선언한 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현대그린푸드 등 현대백화점그룹, 삼성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사의 배당확대 관련 공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에 올해 배당금은 30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 사업년도 배당금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확대를 비롯한 주주 가치 제고는 중장기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coul.co.kr

(3월 셋째 주 분양캘린더(3월 18~24일))

구분	시기	시/도	위치	단지명	총기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청약 접수	18일	경기	강서구 화곡동	화곡 한울 에이치베리움 B동	40	40	20~22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 한라비발비 퍼스트(%)	234	234	18~25
	19일	충북	충주시 화곡리	서충주신도시 시그니처시티(%)	747	747	18~43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2,656	2,656	59~101
M/H 오픈	21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 대방노블랜드	881	881	76~84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 태왕아너스 메트로	222	222	84
	22일	경북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플러스	1,184	258	84~113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플러스	1,184	258	84~113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자료=리얼투데이

지방 중심 분양 활기... 전국 4723가구 청약

분양캘린더

3월 셋째 주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4723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특히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분양이 진행된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9일 강원 원주시 무실동 산 45-16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을 받

는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8층, 4개 단지, 전용면적 59~101㎡, 2656가구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1046가구), 충북 충주시 화곡리 '서충주신도시 시그니처시티(747가구)' 등도 청약을 시작한다.

건본주택도 지방에서 4곳이 문을 연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 대방노블랜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 태왕아너스 메트로', 강원 동해시 천곡동 '이안 동해 센트럴',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코오롱하늘채 메트로플러스' 등이다. /채신화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주식형펀드 자금 유출

주간펀드동향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국내외 주식형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특히 해외주식형펀드는 수익률 상승에도 순자산은 줄었다.

1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3월 8일~14일)간 전주 대비 0.47% 하락한 2155.68포인트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정치적 이슈 등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간 기관은 6658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 이는 14일 쿼

드러플 위칭데이(세 마녀의 날)를 앞두고 기관이 매도세를 보인 영향이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69% 상승한 2096.33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 역시 전주 대비 0.44% 상승한 1,048.20을 기록했다.

국내주식형펀드는 0.09% 하락했다.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주식전체 유형에서 4600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전체 순자산은 5730억원 줄었다. 해외주식형은 0.14% 올랐다. /손영지 기자

豚업계 성수기... 업황 개선 기대치 상승

株라쿨라의 종목

우리손에프앤지

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추세
고기 가격 오름세... 수익성 확보

(2019년도 국내 주요 양돈업체 예상 실적 테이블) (단위: 십억원, %)

종목명	시가총액	현재주가	PER (2018P)	매출액			영업이익		
				2018P	2019E	YoY	2018P	2019E	YoY
선진	305.5	12,850	16.5	912.4	987.0	8.2%	34.8	57.0	63.8%
우리손에프앤지	129.4	1,870	4.7	236.8	252.8	6.8%	20.3	48.7	140.0%
팜스토리	105.1	1,190	-	921.6	950.0	3.1%	19.2	23.0	19.8%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돈육선물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과 베트남 등으로 확산하면서 돼지가격 상승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7일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양돈업계가 재평가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CME)의 2019년 6월 물 돈육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3.59% 오른 파운드당 86.525센트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돈육선물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해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만 95만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 연구원은 "살처분되는 가축이 늘면서 중국 내 돼지고기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환경이 국내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먼저 최 연구원은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내 돼지고기 부족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미중간 무역갈등이 봉합되면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내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는 62%에 달하지만, 향후 12%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 베트남 등으로 퍼지면서 단기간 해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수입량 증가폭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2월 말 저점을 찍고 이달 들어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4~8월은 돼지고기 소비의 성수기로 당분간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매년 늘고 있다"며 "수입량까지 줄어들면 시장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며 최근 국내 양돈업체들의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 양돈업체 가운데 양돈사업을 본업으로 삼았던 업체로 하림 지주의 자회사인 '선진'과 이지바이오의 자회사인 '팜스토리', '우리손에프앤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우리손에프앤지'에 가장 주목했다. 순수 양돈회사에 가까워 양돈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개선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8.6%를 기록하며 동종업계(선진 3.8%, 팜스토리 2.1%)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순이익 부문에서도 다른 업체들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여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손영지 기자

하이트 대체할 '테라'... 하이트진로 주가 상승 이끌까

2013년 퀴즈에 이어 6년 만에 맥주 신제품을 발표한 하이트진로 주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제품인 Hite(하이트)맥주를 대체하면서 맥주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을 밝혔다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3일 신제품 'TERRA(테라)'를 발표했다. 이날 하이트진로 주가는 전일보다 2.23%(400원) 오른 1만

8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다음날인 14일에도 1.09%(200원) 올랐고, 15일에도 0.27%(50원) 상승한 1만 8600원에 장을 마쳤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1일 출시하는 신제품 맥주 '테라'로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증권가에서도 하이트진로의 주가에 신제품 기대감이 형성될 전망이다이라고 봤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류 상위 업체의 신제품 출시이기 때문에 가정·업소 채널에서 매출 확대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님 기자